

2015년 8월 31일 월요일 새벽 정리 말씀(편집본)(20050801)

(선생님께서서는 안경을 쓰시고, 아이보리색 줄무늬양복을 입으시고 하늘색 야자수넥타이를 하셨습니다. 강대상 앞에는 분홍나리꽃이 있고 뒤에는 대둔산 바위가 보입니다.)

새벽제단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은 엄청나게 많은 기대하신다. 왜 우리에게 기대를 하십니까?”

그래서 세 가지를 불러주었는데, 아마 그것은 맞추었을 것입니다. 맞추었을 줄 압니다.

① 기대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대를 잘 하신다!

하나님은 기대의 존재자이십니다. 기대를 이뤄주어야 뜻이 이뤄지니까 기대를 하신다.

② 인간을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대를 하신다. 너무 사랑하시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기대를 하신다.

③ 많이 해 주었기 때문에 기대를 하신다. ‘내가 해 줬으니까 내놔!’ 이렇게 기대를 하신다.

이 세 가지를 냈는데 헛갈렸지요? 3번이었습니다!!

“많이 해 주었기 때문에 기대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냐. 솔직히 말해서!”

“많이 해 주었으니까 많이 기대를 거는 것이다. 해 준 것도 없이 기대 하겠느냐?”

나부터도 여러분들에게 해 주었으면 기대를 거는 것입니다.

<기대>라는 것은 무슨 욕심도 아니고, 특별히 더 바람도 아닙니다. 잘됨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부터 사랑하고 좋아했는가 하면 조상 때부터 사랑했습니다. 에덴서부터. 버리지 않고 또 하고, 또 역사하시고! “인류 출현 때부터 우리를 사랑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랑 하나 만큼은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지요? 나를 너무 좋아하지요?”

이것이 굉장히 큰 기도입니다. 그것이 깨달은 기도입니다. 깨닫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솔직히 말해서 나를 너무 사랑하지요? 나는 하나님을 그만큼 못 사랑하는데, 나를 너무 사랑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하는 것이 제일 큰 기도입니다. 엄청나게 큰 기도입니다.

그런 것을 내가 알아서, 올라와서 하나님께 쓰여지는 이 거대한 사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많이 아는 자,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대하는 것을 많이 아는 자가 결국 ‘구원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자꾸 배우라는 것입니다. 배울 것이 많습니다.

“선생님 갖고 무엇을 배우지?” 하는데, 내가 아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겠습니까? 묻는 것에 대해서 언제 내가 모른다는 소리했습니까? 언제 했습니까? 모른다는 소리는 안 합니다. “네가 어리니까 내가 대답 안 할 뿐이다.”합니다. 모르면 그 당시에 하나님께 물어봐서라도 기어코 답안지를 가르쳐 줍니다. “몰라서 대답 안 함이 아니오, 알아도 너희들이 어리다. 그래서 대답 안 한다. 더 커라.” 그러니까. 선생을 아는 것, 그 중 하나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때 싫어하는가 하니, “나, 안 사랑하는가봐.” 그럴 때 제일 싫어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교육시키고, 자기가 생활 가운데 자기를 키우라.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머리에다 세뇌도 시켜 주어라. 하나님 말씀으로 절대 세뇌를 시키고, 자기를 굳건히 만들어라.”했습니다.

결국은 자기가 자기를 진찰도 하라! 자기에 대해서는 자기가 제일 잘 압니다. 자기는 자기에 대해서 왕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자기와 둘이 합하면 자기를 위대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불만, 불평을 토하는 사람들을 보면 무엇인가 제 할 일을 못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감격하며 감사하며 웃으면서 지내야 됩니다. 인상 쓰면 안 됩니다. 웃으면서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씩 하나씩 배워 가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좌우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가만히 보면, 내가 겪은 것을 볼 때도 가장 큰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 같이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잘 모시고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주를 잘 모실 것인가? 결혼해서 남편을 어떻게 잘 모시고 살 것인가? 결혼해서 어떻게 부인을 잘 모시고 살 것인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을 못하면 깨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몰라서 못살고, 몰라서 실패하고, 죽을 때까지 모르다가 죽습니다. 그것만 알면 끝나고, 그것만 알면 멋있게 인생을 살 수 있는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실패하고 가는 것.

그 계획은 나의 계획이었는데, 그와 비슷하게 하나님 계획대로 <역사>가 돼서 성지땅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과일나무 같은 것은 육적인 것이니까요. 영적인 과일나무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신앙의 농사, 생명의 농사를 짓습니다. 이러면서 그 뜻대로 하나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나의 뜻대로, 소원대로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지겨워서 또 버렸을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꿈이 이루어져도 얼마 못가서 바로 또 버립니다. 지겹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그 낙이 최고라고 했습니다.

천상 하나님을 믿고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지구촌에 사는 나라는 대국이든 소국이든 보면 웃깁니다. 그 사고들은 지극히 육적인 사고들을 가지고 삽니다. 물질을 좋아해서 물질을 벌어들여도 쌓아놓아도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니 마음의 공허를 느끼는 것.

마음은 다릅니다. 마음은 마음의 세계로 연결됩니다! 마음은 마음의 세계, 하늘의 영의 세계,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일체 돼야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때와 시기를 따라 절대 하나님을 믿음으로 즐거운 낙을 누려야 될 것은 다른 것을 한다고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때는 싫어하지만 가서 적극성을 갖고, 확실성을 갖고 해야 됩니다. 나는 우습게 생겼어도 전달 만큼은 하나님의 전달을 내가 가지고 왔다. 내가 전달하니 한번 그렇게 해 보라.”

“사람보고 따르지 말고, 나를 보고 ‘내 전달자’의 말을 듣고 한번 좇아 보라.”

그러면서 과감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공연히 시원찮게 전하면 10년을 해도 안 되지만, 확실하게 전하면 그날 됩니다.

성경 말씀에 “제자들이 확실하게 말씀,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따랐더라. 표적이 따랐더라.”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하고, 인생을 살 때에 확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생활, 주를 기뻐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늘의 아내가 되었으면, 하늘의 신부가 되었으면 신부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역사가 이루어지고, 기쁨이 이루어지고 그러는 것입니다. 누구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선생이라고 해서 특별 서비스를 다 받고만 있는지 아니까? 나도 노력해야 됩니다. 나도 10발자국을 가야 10미터를 가지게 되고, 100보를 가야 100발짝이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고 해서 10미터 갔는데 100미터 간 것으로 되어있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더 많이 가야 됩니다. 머리통이기 때문에 한 발짝이라도 더 가야 됩니다.

할 것은 다 해야 됩니다. 이렇다고 새벽 예배 안 가고, 저렇다고 안 가고 그러면 나중에 가서 그것이 후회가 될 때는 영원한 후회가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후회가 됩니다.

왜 영원한 후회가 되는가 하니, 여기에서 만들 때 못 만들어서 하늘나라에 가면 그 수준에서, 은에서 영원히 끝납니다. 금이 될 사람이 은이 되면 항상 은 취급받으며 인생을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열심히 하라! 육신 썼을 때 영혼 문제의 운명을 좌우시켜 놓아라!

이와 같이 인생이 이 세상을 살 때에 그렇게 오랫동안 많은 것을 겪고, 누렸어도 영계에 가 있으면 ‘내가 잘 지냈었나?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았던가? 그것이 부귀영화였던가? 그로 인해서 내가 영적인 세계에 신경을 못 써서 오히려 보다 흑암권에 와 있구나.’ 합니다.

사람은 <생각>이 ‘주인’입니다.

그러지 말고, “아니다. 나도 하나님이 잘하게끔 예정해 놓으셨다.” 하며 팍 뛰어 들고, 물을 먹더라도 허우적거리면 바로 수영을 배웁니다. 그냥 바로 배웁니다.

“목숨을 걸어놓고 하면 바로 된다.” 그래서 언제든지 목숨을 걸어놓고 해야 될 것은 목숨을 걸어놓아야 그때 됩니다. 빨랫줄에 모가지를 걸어놓고 해 보십시오. 그러면 숨 쉬려고 얼른, 빨리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이 자기를 컨트롤하고 자기를 주관하고 자기를 다스려야지, 언제 자꾸 시킵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알아서 하라. 다 컸으니까!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천둥번개 치듯 명령하시고, 그래도 안 하면 성령은 감동시켜 주세요.”합니다. 감동되면 갑니다. 사람이 감동되면 갑니다. 감동이 되면 갑니다. 그래서 감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감동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데 안 해 줄 리가 있겠습니까? 상대성 세계인데.

그러나 결혼했을 때는 뒤집어져서 여자가 해야 됩니다. 그것을 못할 때는 이혼인 것입니다.

“후반기 경기가 그것이다. 후반기 때는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못 할 때는 코치가 없다. 그냥 가는 것이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해야 겨우 됩니다.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목숨 안 걸고서도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기대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크게 걸고 있습니다.

절대 믿음의 기대를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 자기를 믿는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완벽하게 믿는 기대를.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하나님은 꼭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늘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절대 기대를 하나님께서는 걸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절대 실체 기대를 겁니다. 실제 행동 기대를 겁니다. 그렇게 해 줄 것을 기대를 합니다. 선생님 기질 중의 하나가 끝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끝까지 하라! 내가 책망 주고, 창피 주고, 혼 내키고, 절망적인 이야기로 막 책망해도 “감사합니다. 잘 혼났습니다. 내가 혼나고 깨달았습니다.” 하며 계속 오는 것

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이 크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하는 애인이 조금 서운한 이야기하면 팽동하고, 뻘뻘하다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책망을 달게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했을 때 서운하게 생각하면 “그럼 너를 칭찬하라?” 것입니다.

또 하나 빠진 것이 있습니다. 지옥에 갈 때까지, 마지막 발짝까지 지켜봅니다.

여기가 지옥이면 하나님은 마지막 발짝까지 지켜봅니다. ‘혹시 저 놈이 마지막으로 회개를 하려는가?’ 하고 모가지만 보이고, 대갈통만 보일 때까지 쳐다봅니다. 다 빠지고 넘어가면서 마지막으로 입이 남았을 때 혹시 그 입에서 “하나님!” 하면 그때 다시 참조하려고 그때까지 쳐다보시는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라고 했습니다. 그러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기뻐하며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야 모든 것이 자기 땅이 되는 것이다. 책임자가 책임지고 행하면 세상이 다 그 사람 것이 되는 것이다. 그 사람에게 맡겨 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러면서 가는 것이다.”

잘 들었습니까? 요즘에 줄릴 때가 많지요? 새벽에 안 줄립니까? 줄립지요?

그리고 세계에 있는 각 나라 사람들, 말씀 들으니까 이해가 됩니까?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잘 듣고, 또 틈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고 그러십시오.

이해를 못 하면 안 됩니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 빨리 하게 하기 위해서 한 20분씩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또 40분까지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기 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해 주셔서 대단히, 진실로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하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신부로서 좋아하고 기뻐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랑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생활 속에서 신랑같이 그렇게 모시고 부르고 이야기하고 대화하며 사는 사람이 정말로 드물고, 내가 통하니까 나하고만 서로 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떨어져 있으니 말을 못 합니다. 그래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즐거워함이 원칙이지만, 내가 같이 가서 이야기를 못 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먼 것으로 생각하니 이들의 생각에 은혜와 은총을 더 베푸사 하늘을 섬기고 사랑함이 가깝게 해 주시옵소서.

자기 천사도 자꾸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 내 천사가 있는데 낙심치 않고 열심히 나를 돕게끔 한 마디 해 주세요.” 하고 자꾸 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어떤 천사는 그 사람에게 배치시킨 지가 20년이 되었는데도 자기에게 한 마디도 안 했다고 합니다. 한 마디 이야기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천사들이 힘이 날 리가 있습니까? 자기를 책임진 천사인데요.

하나님께서 은총과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영계와 육계도 잘 융화되면서 살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각 나라가 부지런히 전도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터득하게 해 주시고, 약한 자를 건강케 해 주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주시옵소서.

내가 이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가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잘하는 사람에게 더 충만케 해 주시고, 칭찬도 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쁨도 더 이상적으로 주시옵소서.

성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과, 주 그리스도의 사랑하심이 우리를 늘 이끄사 이 시대 뜻을 펴는데 지장이 없게 날마다 축복해 주시고 은총을 주시옵소서.

많은 생명들이 이 섬리 나라로 돌아오게끔 계속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삼위의 능력이 이들에게 함께하고 영원할지어다. 아멘.  
자 말씀 마쳤습니다.